IT강국 코리아 뿌리째 흔들리나

상장 기업 영업이익률 2년전의 절반 수준

주식시장에서도 부진…대체산업 육성 필요

최근 10년여간 한국경제를 이끌어온 정보기술(IT) 기업들의 수익성과 성장성이 급격히 움츠러들면서 IT강국 신화의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IT 상장사들의 성장 지표인 매출은 2년째 답보 상태에 빠졌으며 수익성을 나타내는 영업이익과 매출액영업이익률도 2004년을 정점으로 급격한 둔화세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작년 휴대전화 업체 VK의 부도로 촉발된 IT 산업의 위기론이 속속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경고마저 제기되면서, 향후 10년을 책임질 대체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IT 상장社, 성장성·수익성 하향곡선 = 4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IT 상장사(365개)의 매출액 총계는 2004년을 정점으로 최근 2년째 정체 상태에 머물고 있다. 2002년 90조2천343억원에서 2003년 104조429억원, 2004년엔 132조4천378억원으로 크게 증가했으나 2005년 131조1천706억원로 오히려 감소한 뒤 2006년 138조148억원으로 3년 연속 130조원대에 머물고 있다. 또 2002년 9.80%에 불과하던 영업이익률은 2004년 14.00%까지 치솟았다가 2006년엔 절반 수준인 7.10%까지 급격하게 떨어졌다.

IT 대표주자인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은 2004년 20.85%에서 작년에 13.

44%로 주저 앉았다.

◇증시에서도 잇따라 '빨간불' = IT관련 업체들의 수익성과 성장성이 급속히 훼손되면서 주식시장에서도 이들 업체의 부진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우선 IT 관련 종목들의 증시 기여도가 한층 떨어졌다.

삼성전자 주가는 2001년말 27만9천원에서 2005년말 65만9천원으로 2.4배로 뛰었다가 이후 하강을 지속해 3일 현재 57만4천원으로 12.9% 하락했다. 코스피지수는 2005년 말 1,379.37에서 1,463.75로 6.12% 올라, 삼성전자 상승 없이 지수가 오르는 기현상이 연출됐다.

또 중소업체에서 국내 3위의 휴대전화 업체로 급성장했던 팬택과 팬택앤큐리텔은 워크아웃을 협의중이며 2006회계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 전액잠식이 확인돼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다.

◇전문가들 "경쟁력 강화 또는 대체산업 개발해야" = IT산업의 지속적 수익성 악화는 경쟁 심화 속에서 지지부진한 핵심부품의 국산화 성과, 투자 부진, 미국 등 해외 의존도 심화 및 이로 인한 변동성 확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한국은행이 내놓은 '주력 성장산업으로서 IT선업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총고정자본형성에서 IT투자 증가율은 2000년 35.7%에서 2002년 5.2%, 2004년 0.8%, 2005년 10.2% 등으로 낮아졌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서울모터쇼 내일 개막 전세계 자동차 산업의 현주소를 읽을 수 있는 '2007 서울모터쇼'가 6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개막, 팡파르를 울린다. 사진은 4일 개막을 앞두고 막바지 작업이 한창인 모습. 한미FTA 체결로 더욱 관심을 끌고 있는 이번 모터쇼는 15일까지 계속되며 전시공간만 5만3천㎡, 참가업체는 11개국 188개 업체에 이른다. /연합뉴스

한미 FTA시대 개막 업종별 점검

제약사, 신약개발 비중 높여야

통신 침투 봉쇄…서비스 강화를

〈1〉 의약·통신 분야

"신약개발 능력을 높여 해외시장으로 나가야 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의약품 협상이 타결되자 국내 제약업계는 원치 않았던 결과에 실망을 금치 못하면서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과감한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다시 말해 영업과 마케팅 중심의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탈피해 연구개발 중심의 명실상부한 지식집약산업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협상에서 드러났듯이 더 이상 카피약, 제네릭 의약품, 개량신약만으로는 치열한 경쟁이 불을 뿜는 글로벌 제약시장에서 생존조차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동안 국내 제약업계는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외국에서 신약을 독점적으로 들여오거나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 만료에 맞춰 제네릭 의약품이나 개량신약을 만들어 파는 방식으로 연명해 왔다.

지금까지는 이런 경영전략이 통했다.

하지만 한미FTA 체결 이후 상황은 달라졌다. 물론 한미FTA의 충격의 강도가 예상했던 것보다 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것이다.

미래에셋증권 황상연 연구관은 "제약부문을 한미FTA의 대표적인 피해산업으로 간주했지만, 복제의약품 가격 인하, 해외 수입의약품 심사절차 간소화 등 그동안 다국적 제약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주요한 쟁점 사항들의 상당 부분이 국내 의약 제도변화를 통해 소화된 측면이 있는 만큼 한미FTA가 타결되더라도 그렇게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럼에도 제약업계가 받게 될 타격은 만만찮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협상 타결로 국내 의약품 시장은 다국적 제약사들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약협회는 현재 국내 제약사들과 외국 제약사들이 7대 3으로 분할하고 있는 의약품 내수시장이 향후 5년 안에 3대 7로 역전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미 FTA 협상 타결이 국내 통신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나쁘지 않다'는 것이 업계 안팎의 대체적인 평가다.

KT와 SK텔레콤 등 지배적 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봉쇄라는 '최후의 보루'를 지켜냄으로써 양대 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한도를 현행대로 49%로 묶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또 지배적 통신사업자의 기간망 개방에 대해서는 양측이 국내 기업과 외국기업 간의 차별을 두지 않기로 합의했지만 이를 계기로 외국 기업의 국내 통신 서비스 시장 침투가 가속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이런 관측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현재도 외국업체가 기간통신사업자의 망을 빌려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려 할 경우 유·무선간에 다소간 차이는 있지만 별정사업자 등록을 하면 이미 100%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즉, 망 개방에 대한 이번 합의는 다분히 선언적인 의미로 서로 호혜 평등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또한 IT 산업을 단기간 안에 국가 성장동력으로 견인할 수 있었던 요체인 우리 정부의 기술 표준 정책 드라이브에도 큰 장애가 없을 것이라는 점도 매우 긍정적인 요소로 풀이된다.

미국이 그간 한국 정부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기술 표준 설정 및 선택 과정을 정부가 아닌 개별 사업자에게 돌려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지만, 최종적으로는 공공정책 목적의 정부 표준 정책 추진 권한에 대해 인정하기로 양보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수출기업도 수익성 갈수록 악화

외형성장 불구 내수기업에 뒤져

수출 호조 속에 수출이 주력인 기업의 외형성장이 지속되고 있으나 수익성은 오히려 내수가 주력인 기업에 뒤처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기업의 매출액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상승해 50%를 넘어섰으며 기계.전기전자 등 상위 3대 주력부문이 제조업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편중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4일 한국은행이 작성한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경영성과 추이'에 따르면 1998~2001년 수출업체의 매출액 증가율은 6.4%로 같은 기간 내수기업(6.2%)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으나 2002~2005년에는 수출업체의 매출액 증가율이 10.2%로 내수기업(8.7%)과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작년 1~9월에는 수출기업이 8.1%, 내수기업이 4.3%를 나타내 수출기업의 성장성이 내수기업을 크게 상회했다.

그러나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 경상이익률에서는 2004년 수출기업이 9.3%, 내수기업 6.5%로 수출기업의 수익성이 좋았으나 2005년에는 이 수치가 6.3%와 6.7%로 반전됐다.

특히 작년 1~9월에는 수출기업의 경상이익률이 6.6%에 그친 데 비해 내수기업은 8.0%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일본 등과의 수출경쟁이 심화되면서 환율하락에 따른 손실을 수출가격에 충분히 전가하지 못한 탓으로 보인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수출업체는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며 이 비중이 50% 미만이면 내수기업으로 구분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편 제조업의 매출액 가운데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 34.3%에서 2002년 36.6%, 2004년 45.3%로 높아졌으며 2005년에도 43.4%를 나타내 여전히 높은 수출의존도를 보였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의 수출의존도가 1997년 37.8%에서 2005년 55.0%까지 높아졌으나 중소기업은 오히려 26.8%에서 23.7%로 떨어졌다. /연합뉴스

"한·미 FTA 금융부문 실보다 득"

재경부, 장기적으론 긍정 평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로 국내 금융분야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이고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재정경제부는 4일 '한.미 FTA 금융협상의 주요 결과 시사점' 자료를 통해 한미 FTA 타결이 우리 금융산업과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재경부는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개방도가 이미 높고 인허가 산업으로서의 기본적인 속성을 갖추고 있어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추가 개방 폭이 작고 경제 위기시 외화유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단기 세이프가드 도입, 국책금융기관들의 특수성 인정 등으로 우리의 금융인프라에 큰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신재윤 재경부 국제금융심의관은 최대 쟁점이었던 단기 세이프가드와 관련,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기한을 6개월로 하고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돼있으나 한미 FTA에서는 이 기간을 1년으로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현지법인·지점 등에 대한 포괄적 개방, 신금융서비스의 개방 등으로 외국금융사의 진출 촉진이 예상돼 우리 금융회사의 경쟁력 강화 및 금융소비자의 후생 증가가 기대되고 행정지도의 서면방식 등으로 금융감독규제의 투명성과 수준도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농협·수협·새마을금고·신협 등 4대 공제와 우체국보험에 대한 금융감독이 강화되면서 민간보험사와의 공정경쟁기반이 마련돼 금융산업의 건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재경부는 한미 FTA 금융협상은 최대한 국내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진행돼 미국의 요구에 의해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없다고 전하고, 다만 우리의 자체적인 필요나 그동안 미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법 개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3월 수입차 등록

4,561대

한달새 33% 증가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지난 3월 한달간 총 4천561대의 수입차가 신규등록돼 수입차 시장 개방 이후 최대의 월간 등록대수를 기록됐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에 비해 33.2% 증가한 것으로, 이로써 올들어 지난 3월까지 수입차 신규등록 대수는 1만2천351대에 달했다.

브랜드별로는 BMW가 가장 많은 657대였으며, 혼다 645대, 렉서스 609대, 아우디 494대, 메르세데스-벤츠 466대, 폴크스바겐 327대, 크라이슬러(크라이슬러·지프·닷지) 324대, 푸조 206대, 볼보 201대, 인피니티 187대 등의 순이었다.

모델별로는 혼다 CR-V가 360대 팔려 지난 2월에 이어 2개월 연속 '베스트셀링카'에 올랐으며, BMW 523(305대), 렉서스 ES350(275대)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배기량별로는 2천1-3천cc 차량이 전체의 44.4%를 차지하는 2천27대로 가장 많았고, 3천1-4천cc 1천103대, 2천cc 이하 884대, 4천1cc 이상 547대 등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지역별로는 서울 1천878대(41.2%), 경기 1천92대(23.9%), 경남 914대(20.0%) 등이었다. /연합뉴스

자기소개서 합격여부 몇분만에 판가름 날까

기업 60% "2분내 판단"

기업 인사담당자들은 입사지원자 한사람의 자기소개서를 검토한 뒤 합격 여부를 가리는 데에 얼마나 시간을 들일까?

4일 인사취업전문기업 인크루트(www.incruit.com)에 따르면 최근 자사 회원사 210곳을 상대로 지원자 한명당 자기소개서 검토시간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1분 이내'에 자기소개서 검토를 마친다는 기업이 39.0%로 가장 많았다.

'1-2분'가량 검토한다는 기업이 21.0%, '2-3분'이라는 곳은 16.7%, '4-5분' 11.4% 등의 순으로 나타나 2분 이내에 검토를 마친다는 기업이 6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응답기업의 평균 소요시간은 약 3분35초였다. 자기소개서 중 가장 점수비중이 높은 항목으로는 '지원동기'(26.7%)가 1순위로 꼽혔고 '사회생활 및 경력사항'(24.3%), '성격상 장단점'(15.2%), '직업관'(9.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인크루트 관계자는 "자기소개서를 쓸 때에는 지원회사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참신한 표현으로 적어야 단시간에 인사담당자들의 눈길을 끌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여성친화적 기업 일수록 생산성높고 이직률 낮다"

유규창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4일 "여성친화적인 기업일 수록 생산성이 더 높고 이직률은 낮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열린 남녀고용평등 관련 정책 세미나에서 "한국노동연구원이 2003년 실시한 사업체패널(1천287개) 조사를 분석한 결과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직장보유시설 등 여성친화적 프로그램을 도입한 기업일수록 생산성은 높고 이직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여성친화적 프로그램을 1가지 추가 도입할 때마다 근로자 1인당 매출액은 103만원 증가하고 연간 이직률은 0.9% 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피부전문미용사 생긴다

내년부터 피부 전문 미용사가 생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1일부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미용사 자격증을 일반 미용사와 피부 미용사로 구분토록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피부 미용사는 별도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말까지 미용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미용 관련 학교·학과를 졸업할 경우 일반 미용사는 물론 피부 미용사도 할 수 있다.

피부 미용사는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피부 상태 분석, 피부 관리, 눈썹 손질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복지부의 이 같은 방침은 피부 미용에 대한 국가 자격제도가 없어 무자격자 및 무면허자에 의한 불법 피부 미용이 난립하고 소비자 피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연합뉴스